

# ISSUE BRIEF

## 코로나19, 국제 유가 그리고 에너지 부문 대응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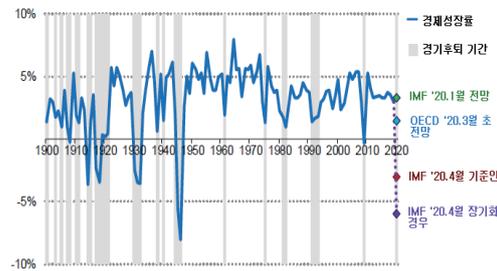
- I. 코로나19와 에너지
- II.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전망
- III. 코로나19와 에너지 수급 변화 전망
- IV. 에너지 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
- V. 결론

### I. 코로나19와 에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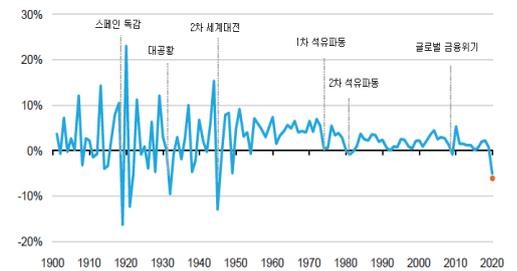
#### 코로나19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

-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제·사회 활동의 감소는 글로벌 에너지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
  - IMF(2020)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'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-3%(기준안), 팬데믹이 장기화 될 경우 -6%도 가능하다고 전망
  - IEA(2020)는 경제·사회 활동의 축소에 따라 '20년 에너지수요가 전년 대비 6% 감소 전망
- 글로벌 에너지수요의 급감은 국제 유가하락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강한 충격을 초래
  - 국제 유가는 현물가격 기준으로 1월 \$64/b(두바이)에서 3~4월 급락세를 보인 후 5월 들어 반등하였지만 여전히 금년 최고가격 \$69.65/b(1월 6일)에 비해 약 50% 수준에 머무름

[그림 1] 글로벌 경제성장률 추이



[그림 2] 글로벌 경제성장률 추이



자료: IEA(2020), Global Energy Review 2020 : the impacts of the Covid-19 crisis on global energy demand and CO2 emissions

###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필요

- 유가에 영향을 주는 수요와 공급측의 주요 변수들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여 '20년 단기 국제 유가를 전망
- 국제 유가의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'20년 단기 에너지 수급의 변화를 에너지원별 및 부문별로 전망
- 이를 토대로 에너지 산업별로 에너지 수급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, 에너지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

## II.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전망

### 1 최근의 국제 유가 동향

#### 국제 유가

-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1월 \$64/b, 2월 \$54/b에서 3~4월 급락세를 보인 후 5월 들어 반등하며 29일 기준 \$35/b를 기록

#### 국제 유가 변동의 수요측 요인

- 세계 석유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과 여행 제한 등으로 급격히 감소
  - 석유 전문기관들은 금년 세계 석유수요가 전년 대비 800만b/d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
    - \* 813만b/d 감소(EIA), 870만b/d 감소(IEA) 및 907만b/d 감소(OPEC)

#### 국제 유가 변동의 공급측 요인

- 3월 6일 OPEC+ 장관급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산안 합의가 러시아의 반대로 실패함에 따라 국제 유가는 공급과잉 예상으로 하락

- 4월 9일의 OPEC+의 감산체제 복원 및 전례 없는 규모의 감산안 합의는 유가상승 요인이었지만 2분기 석유수요 급락으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
- 5월 이후 OPEC+ 감산이행과 수요의 부분적 회복 소식으로 국제 유가 반등

### <표 1> 최근 국제 유가 및 석유시장 주요뉴스

일자	두바이 현물유가(\$/b) (직전 거래일 대비 변화)	석유시장 뉴스
1월 23일	\$62.77 (\$1.49↓)	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 우려로 골드만삭스 국제 유가 배럴당 \$3 하락 전망 발표
2월 26일	\$52.28 (\$2.20↓)	IEA 사무총장, 금년 1분기 석유수요 전년 대비 43.5만b/d 감소 언급
3월 9일	\$32.87 (\$15.71↓)	OPEC+, 추가 150만b/d 감산안 합의실패(3월 6일); IEA 금년 석유수요 종전치 대비 110만b/d 하향조정(3월 9일)
4월 13일	\$22.31 (\$1.01↓)	사우디 OPEC+ 긴급회의 소집 및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감산안 합의; G20 감산안 지지 표명(4월 10일)
4월 15일	\$19.68 (\$1.98↓)	IEA 4월 석유시장보고서, 금년 세계 석유수요 전년 대비 9.3백만b/d 감소 전망 보고
4월 20일	\$20.78 (\$0.17↑)	WTI 5월 선물가격 초유의 마이너스 가격 기록((-)\$37.63) : 마이너스 가격 발생 원인은【참고1】 참조
5월 12일	\$26.93 (\$0.21↑)	사우디/UAE/쿠웨이트 6월 중 118만b/d 추가 감산계획 발표
5월 14일	\$29.83 (\$2.99↑)	IEA 석유수요 전년 대비 8.7백만b/d 감소로 종전 대비 수요 상향조정

#### [참고 1] WTI 선물 마이너스 가격 발생 원인

- 최근 유가하락기에 가격반등을 기대한 일부 투자자들의 순매수 포지션 증가
- 5월물 WTI 선물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money manager 등 선물시장 투자자들은 보유 중인 매수 포지션의 청산이 필요
- WTI 실물 인도지점인 쿠싱지역의 원유 저장공간 부족현상이 급격한 선물유가하락의 원인
  -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한 일부 투자자가 쿠싱지역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원유 실물 인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이너스 가격의 매도를 주문

## 2 국제 유가 전망

### '20년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

- '20년 평균 국제 유가는 \$37.6/b로 전망되며,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\$31.5/b에서 최대 \$46.0/b 범위에서 변동이 가능

<표 2> 2020년 국제 유가 전망(두바이유 기준)

(단위: \$/b)

시나리오	2019	2020				
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
시나리오 ①	63.53	50.42	27.20	34.58	38.11	37.58
시나리오 ②			30.83	48.43	54.29	45.99
시나리오 ③			25.76	31.35	34.47	35.50
시나리오 ④			23.88	24.10	27.75	31.54

주: 에너지경제연구원 단기유가예측모형에 의한 전망치('20.5)

시나리오 ①: OPEC+ 감산준수율 100%, 완만한 수요 회복(연평균 전년 대비 8.7백만b/d↓)

시나리오 ②: OPEC 자발적 추가감산(하반기 2백만b/d) 및 조기 수요 회복(연평균 전년 대비 6.6백만b/d↓)

시나리오 ③: OPEC+ 일부국가 감산준수율 저조(시나리오 ① 대비 2-4분기 90만b/d 원유생산 증가), 완만한 수요 회복(연평균 전년 대비 8.7백만b/d↓)

시나리오 ④: OPEC+ 일부국가 감산준수율 저조(시나리오 ① 대비 2-4분기 90만b/d 원유생산 증가), 수요 회복 지연(연평균 전년 대비 10.4백만b/d↓)

- OPEC+ 감산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경우 국제 유가는 연평균 \$37.6/b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(시나리오 ①, 기준안)
- OPEC의 자발적 추가 감산과 함께 조기에 수요가 회복되면 국제 유가는 연평균 \$46.0/b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(시나리오 ②, 고유가)
- OPEC+ 감산준수율이 저조하고 수요 회복이 완만하면 \$35.5/b(시나리오 ③), 수요 회복이 지연 될 경우 \$31.5/b(시나리오 ④) 전망

#### [참고 2] 과거 저유가 시기의 유가반등 사례

- (사스 및 메르스 사태)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달리 팬데믹이 선언되지 않았고 세계 석유 수요 영향도 미미하였으며 OPEC의 공급량 조절 대응도 없었음.
- ('08~'09년 금융위기)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세계 경제 침체 및 석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OPEC은 '08년 4분기부터 12개 분기 동안 원유생산을 축소
  - 세계 석유수요는 '08년 3분기부터 전년 대비 감소, '09년 4분기부터 증가하여 '10년 2분기부터 금융 위기 이전 수준 회복

- 두바이유 가격은 `08년 3분기 배럴당 \$113.5에서 \$52.7(`08, 4분기), \$44.3(`09년, 1분기)로 급락하였으나 OPEC 감산조치에 따라 반등 및 이후 석유수요 회복과 더불어 급등
- (**`14~`16년 OPEC 증산**) OPEC이 미 셰일원유 견제 및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`14년 4분기부터 원유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미 셰일원유 생산 둔화 및 국제 유가하락
  - OPEC 원유생산은 `14년 1~3분기 30.11백만b/d에서 4분기 30.50백만b/d 및 `15년 ~`16년 평균 31.89백만b/d로 확대
  - 국제 유가는 `14년 3분기 배럴당 \$101.6에서 \$74.7(4분기), \$52.1(`15년 1분기), \$40.8(`15년 4분기), \$30.3(`16년 1분기)로 하락 후 미 생산 감소로 석유수급이 타이트 해지면서 `16년 2분기부터 반등

### [참고 3] 유가하락의 LNG 부문 영향

- 상류 부문 투자 축소
  - IEA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'20년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가 전년대비 20%(4,000억 달러) 감소하고, 석유·가스 부문은 32% 감소 전망(World Energy Investment 2020, '20.5.27)
- LNG 프로젝트 투자 지연
  - 최근 저유가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 일정 지연 및 신규 LNG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(FID) 연기 전망
  - '20년 2월 기준, 추진 중인 LNG 프로젝트 규모는 388백만 톤 수준(IHS '20.2)이었으나, 다수 추진 불투명
  - 러시아, 카타르 등 NOC들은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계획대로 진행 예정, 반면 IOC 프로젝트들은 현금흐름과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 등 투자계획 재검토
- LNG 시황 및 수급 전망
  -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재(lockdown)와 수요 부진으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(최근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\$2/MMBtu 이하로 하락)
  - 미국 LNG 프로젝트는 카고 취소가 가능한 특성으로 국제 LNG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스윙공급자(swing supplier)의 역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전망
  - \* 수요 침체와 역대 최저인 현물가격 상황에 따라 미국 구매자들은 LNG 물량 인수를 포기하여 LNG 프로젝트 가동률도 하락하였지만, LNG 수요 회복으로 현물가격이 상승하면 가동률 상승이 가능

### Ⅲ. 코로나19와 에너지 수급 변화 전망

####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

- '20년 총에너지와 최종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각각 1.4%, 1.3% 감소할 전망
- GDP는 상반기 0.2% 감소한 후, 하반기에 0.5% 회복되며 연간으로는 0.2% 성장할 것으로 전제(KDI '20.5.21)
- 총에너지 기준 에너지원별 수요는 원자력과 가스수요가 각각 12.2%, 1.0% 증가하는 반면, 석탄과 석유는 7.7%, 1.0% 감소할 전망

<표 3> 2020년 에너지수요 전망

구분	2018			2019p			2020e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총(일차)에너지									
석탄 (백만 톤)	68.9 (3.7)	72.1 (-1.7)	141.0 (0.9)	63.0 (-8.5)	70.0 (-2.9)	133.0 (-5.7)	56.5 (-10.3)	66.3 (-5.3)	122.8 (-7.7)
석유 (백만 bbl)	466.6 (1.9)	465.2 (-2.9)	931.8 (-0.6)	454.8 (-2.5)	474.2 (1.9)	929.0 (-0.3)	440.7 (-3.1)	479.2 (1.1)	919.8 (-1.0)
가스 (백만 톤)	22.6 (21.6)	19.7 (10.5)	42.3 (16.2)	21.4 (-5.2)	19.5 (-0.8)	40.9 (-3.2)	22.6 (5.6)	18.7 (-4.1)	41.3 (1.0)
수력 (TWh)	3.4 (5.6)	3.9 (2.5)	7.3 (3.9)	3.0 (-11.6)	3.2 (-16.6)	6.2 (-14.3)	3.1 (3.6)	3.5 (9.0)	6.6 (6.4)
원자력 (TWh)	60.0 (-23.3)	73.6 (4.6)	133.5 (-10.1)	79.8 (33.1)	66.1 (-10.2)	145.9 (9.3)	80.7 (1.1)	83.0 (25.5)	163.7 (12.2)
신재생·기타 (백만 toe)	8.4 (7.7)	8.7 (8.3)	17.1 (8.0)	9.0 (7.2)	8.9 (2.2)	17.9 (4.7)	8.7 (-3.5)	9.1 (2.5)	17.8 (-0.6)
합계 (백만 toe)	153.1 (2.9)	154.4 (0.7)	307.5 (1.8)	151.3 (-1.2)	152.2 (-1.5)	303.5 (-1.3)	146.3 (-3.3)	152.8 (0.4)	299.2 (-1.4)
최종에너지									
산업	71.0 (2.0)	71.8 (-0.6)	142.9 (0.7)	70.3 (-1.0)	72.4 (0.8)	142.7 (-0.1)	69.6 (-1.1)	73.0 (0.8)	142.6 (-0.1)
수송	21.1 (1.0)	21.9 (-0.2)	43.0 (0.4)	21.3 (1.0)	21.2 (-2.9)	42.6 (-0.9)	19.2 (-10.0)	21.0 (-1.4)	40.1 (-5.7)
건물*	25.7 (6.4)	21.2 (0.2)	46.9 (3.5)	25.1 (-2.6)	20.9 (-1.3)	46.0 (-2.0)	24.3 (-2.9)	21.0 (0.7)	45.4 (-1.2)
합계 (백만 toe)	117.9 (2.8)	114.9 (-0.4)	232.7 (1.2)	116.7 (-1.0)	114.5 (-0.3)	231.2 (-0.6)	113.1 (-3.1)	115.0 (0.4)	228.1 (-1.3)

\*건물 부문은 가정, 상업, 공공 부문의 합,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(%)

- 최종소비 부문별로는 수송 부문과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수요가 각각 5.7%, 1.2% 감소하고 산업 부문 수요는 전년 수준에서 정체(-0.1%)될 전망

## '20년 최종소비 부문별 에너지수요 전망

- **(산업)** 산업 부문 에너지수요는 상반기 1.1% 감소한 후 하반기 0.8%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0.1% 감소할 전망
  - 전력, 가스, 석탄 수요는 각각 1.4%, 2.2%, 1.5% 감소하나, 석유수요는 전년 대비 2.3% 증가
- **(수송)** 수송 부문에서는 도로와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수요가 빠르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5.7% 감소할 전망
  - 승용차를 선호하는 현상, 온라인쇼핑 수요 증가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 감소세를 일부 제한할 것으로 전망
- **(건물)** 건물 부문에서는 난방도일이 정체된 가운데, 코로나19의 영향이 상업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1.2% 감소할 전망
  - 가정 부문은 재택 시간 증가로 특히 전력 위주로 소비 증가

##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

- **(석탄)** 석탄수요는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.7% 감소할 전망
- **(석유)** 석유수요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.0% 감소할 전망
  - 산업 및 가정 부문은 각각 납사 등 원료용 수요 증가세, 재택시간의 증가로 에너지수요 증가
- **(가스)** 천연가스수요는 도시가스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전용의 증가로 전년 대비 1.0% 증가할 전망
- **(전력)** 전력수요는 산업과 상업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0.6% 감소 전망
  - 산업 및 상업 부문의 전력수요는 감소하나, 가정 부문에서 전년 대비 3.1% 증가할 전망
- **(신재생에너지)** 신재생에너지는 최종소비 부문에서 증가하나 발전 부문에서 감소하여 0.1% 감소 전망
- **(열에너지)** 열에너지수요는 난방도일이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전년 수준에서 정체(0.2% 증가)

## IV. 에너지 산업 영향 및 대응방향

### 1 산업 부문별 코로나19와 저유가의 영향

<표 4> 에너지 산업 부문별 영향

부문	가격 (생산단가)	산업 영향	비고
석유	↓	정유사 수익성 악화, 주유소 경영환경 악화	
가스	↓	산업용 매출 하락, 발전용 경쟁력 강화	LPG 대비 산업용 LNG 단기 상대가격 상승
전력	↓	석탄/원자력 매출 감소, 가스발전 중립	
신재생에너지	-	보급은 의무화로 중립, 산업은 글로벌 시장 축소로 수출 감소	상대가격 상승
효율 및 친환경차	-	에너지효율 투자 감소, 친환경차 영향 혼재	상대가격 상승

#### ① 석유산업

##### 석유제품 국내가격은 하향 안정세

- 국제유가 하락으로 최근 휘발유,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하락
  - '20년 5월 3주차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은 1월 4주차 대비 각각 리터당 322.3원(20.5%), 340.4원(24.3%) 하락
  - '20년 하반기 평균유가가 \$36.3/b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5월 3주차 가격보다 리터당 70~90원 상승 전망

##### 석유수요 감소 및 저유가로 인해 국내 정유사의 수익성 악화

-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마진 악화와 원유 재고평가손실로 정유 부문에서 1분기 4조 4,22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역대 최악의 실적 보고

##### 주유소산업의 경영환경 악화

- '10년 이후 주유소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, 최근 수송용 석유제품수요 감소로 경영환경 악화가 심화되어 한계주유소의 폐업이 가속화될 가능성 존재

#### ② 가스산업

##### (가격) 저유가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 하락 및 상대가격이 변화

- (발전용)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'20년 연평균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은 '19년 대비 23% 하락 전망

- **(산업용)** 유가 변동이 일정 시차를 두고 천연가스 도·소매 가격에 반영되어 LPG(프로판) 대비 산업용 도시가스의 상대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

### (발전용) 타 발전연료 대비 천연가스의 경쟁력은 개선될 전망

- 발전 부문 천연가스수요 증가('19년 대비 3.4%)와 더불어 천연가스 요금 하락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
- '20.2월부터 석탄 대비 천연가스의 상대가격은 하락 추세이며, 유가하락 영향이 실현되는 하반기에 가격경쟁력이 더욱 개선 가능

### (도시가스) 산업용 도시가스수요 감소로 매출 하락 전망

- 도시가스수요 감소에 따라 도시가스사의 매출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
- 특히 LNG와 LPG의 전환이 용이한 산업용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매출의 주요 변수

## 🔍 전력산업

### 전력시장의 SMP 및 정산금

- 코로나19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와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의 하락으로 인해 '20년 평균 SMP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, 정산금 총액도 하락 전망

### 발전원별 매출에 대한 SMP 하락의 영향은 혼재

- 석탄 및 원자력 발전의 경우 SMP 하락에 따른 매출감소가 불가피
- LNG 발전은 연료 구매비용 하락분이 SMP 하락에 따른 매출감소를 일정부분 상쇄

## 🔍 신재생에너지산업

### 코로나19와 국제 유가하락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영향은 혼재

- **(보급)**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주로 의무화 정책(RPS 등)에 의존, 단기적으로 의무비율 조정 등이 없다면 보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
- **(제조업)**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의 경우 유가하락에 따른 그리드패리티 역전 등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축소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존재

###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보급에 영향

- 전력수요 하락에 따른 신규 설비 수요 감소, 상대가격 상승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 등이 보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

## ① 에너지효율산업 및 친환경차산업

### 에너지효율 투자 및 에너지신산업

-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수요 감소와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인이 감소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는 감소 전망
- 에너지효율 관련 에너지신산업 추진 동력 저하, ESCO, EERS 등 에너지효율 투자를 견인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민간 투자 위축 가능

\* 2008년 금융위기시 민간자금(억원) : ('07) 1,040 ('08) 553 ('09) 660

### 친환경차

- **(친환경차 보급)** 구매 의향이 연료비에 민감한 전기차 및 수소차는 저유가 상황이 유지될 경우 단기적으로 보급에 차질 가능
  - 다만, 구매자가 향후 유가상승을 기대하는 경우 단기적 보급 차질은 제한적이며, 친환경차 친화정책에 힘입어 시장 성장세는 지속 예상
- **(충전소)** 수소차와 전기차의 보급이 지연될 경우 구축 중인 충전소 가동률 저조로 운영에 어려움 발생이 가능

## 2 대응방향

### ① 석유산업

#### 정유산업의 수익성 제고 및 사업구조 개선

- 국내 정유산업의 수익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정책과 중장기적 사업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
- 단기적으로 정유산업의 유동성 확보,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, 정제마진 개선을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, 정제원료 다변화 등의 지원 검토
- 중장기 수익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석유화학 및 타 에너지산업으로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 등 정유사 사업구조의 개선 필요

#### 주유소산업 합리화 지원

- 코로나19로 인한 주유소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, 중장기적으로 산업합리화를 위한 한계주유소 퇴출 지원방안을 검토

## ⦿ 가스산업 및 전력산업

### 시장 및 기업의 적응력 강화

- 시장 환경 변화가 가격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용 도시가스, 전력부문 등의 요금체계 유연성을 제고하여 시장 및 기업의 적응력 강화
- 도시가스의 경우 유가 급락 시 산업용 도시가스의 상대가격 왜곡이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가스용 원료비 연동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
- 전력 부문은 도매시장 가격변동이 소매요금에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

## ⦿ 신재생에너지산업

###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 및 비용효율성 제고

-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저유가로 인해 해외시장의 침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RPS 선정시장 확대 등 수출 감소를 대체할 안정적 내수시장 확충 필요
- REC 가격 상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경쟁 확대, 가격 검증 강화, REC 가중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비용효율성 증대 필요

###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로 활용

- 내수시장 확보와 R&D 투자확대를 통해 국내 제조업 및 건설/서비스업 역량을 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도모

## ⦿ 에너지효율산업 및 친환경차산업

### 에너지효율 투자

-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과 에너지효율 투자 진작을 위한 단기적 인센티브 강화 필요
  - 정부의 제3차 추경안과 한국판 뉴딜\* 예산의 조기 투입을 통해 고효율가전 보급,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등 민간 부문의 에너지효율 투자를 위한 유인 제공
- \* “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”(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, '20.6.3일)

### 친환경차 보급

- 국내 전기차,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의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지속적인 강화와 한시적인 충전요금 보조 고려

- 수소차 보급 저조시 수소충전소 가동률 저하로 운영 손실이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수소충전소 운영보조금 지급 검토

## V. 결론

### 코로나19는 에너지 소비를 수반하는 경제·사회 활동을 축소하여 국제 유가의 하락과 에너지수요의 감소를 야기

- '20년 평균 국제 유가는 \$37.6/b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라 최소 \$31.5/b에서 최대 \$48.4/b의 범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
-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측의 충격으로 '20년 총에너지와 최종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각각 1.4%, 1.3% 감소할 전망
  - 에너지원별로는 석탄, 석유,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부문이 감소하나, 가스는 도시가스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, 발전용의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증가

### 코로나19와 저유가는 에너지산업별로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침

-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감소하나, 에너지원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시차에 따라 상대가격은 변화
-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석유, 도시가스, 전력 부문은 매출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으나, 수요가 증가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와 천연가스를 주력으로 하는 발전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
-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효율, 친환경차 등 에너지전환의 주력 산업은 의무화 등 정책지원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
  - 다만, 화석에너지 대비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보급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로 보급 추진 동력 저하 가능

### 에너지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한시적인 지원 확대와 더불어 가격체계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시장기능의 강화 필요

- 한시적인 제세부담금 경감, 보조금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단기적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,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사업구조 개선 유도
- 시장 환경 변화가 가격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용 도시가스, 전력부문 등의 요금체계 유연성을 제고하여 시장 및 기업의 적응력 강화
-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효율, 친환경차 등 에너지전환의 주력 산업은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과 한국판 뉴딜의 조기 이행으로 민간투자의 견인 필요

에너지경제연구원 유가전망 및 영향분석 T/F <http://www.keei.re.kr>

문의	선임연구위원	소진영	jyso@keei.re.kr	052)714-2166
	연구위원	조철근	cheolcho@keei.re.kr	052)714-2070